

출애굽기 12:21-28

유월절에서 새 유월절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 우리의 유월절

M: 유월절의 의미를 떠올리며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시기를 보면 유월절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9개의 재앙이 지나가고 10번째 재앙이 오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지만 동시에 바로 왕과 애굽의 온 땅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끔 당신의 존재와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9개의 재앙으로부터 애굽인들을 구원해주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제외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1-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처럼 바로 왕과 애굽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었다면 10번째 재앙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재앙이었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련의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20절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일에 한 가족에 한 마리씩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14일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창문)에 바르고 그 날 밤에 잡은 고기를 구워서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남는 것이 없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이 유월절에 죽는 양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신약의 모든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새 유월절로 인식합니다. 피로 사망을 넘겼던 유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피로 지불하시면서 죄의 종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 덕분에 이동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누구 덕분에 이동했는지를 잊으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새해 시작을 유월절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첫날, 여러분의 새달의 첫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첫날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1-17

구원받은 죄인에게 주신 법

계명을 주신 이유 / 계명의 내용

M: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고 그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선불리 판단합니다. 잡코리아에서 중소기업 면접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를 보면 면접자를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하는데까지 3분 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뽑기 위해 주의깊게 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거야' 라고 판단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선부른 판단으로 인한 오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도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도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지키면 죽는다는 협박의 강제조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가 티타임 가지면서 흰 종이를 들고와 한 문장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뽀뽀해주기', '점심시간에 서로 밥 잘먹었는지 전화해주기', '눅으면 눅는다고 카톡해주기', '다른 여자, 남자 절대 쳐다보지 않기', '싸우더라도 먼저 화해하자고 말하기' 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할 도리들을 적은 것처럼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특히 1~3계명을 통해 종교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신의 신의 아들이나 대리자로 주장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엉뚱한 우상에게 고통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게끔 하십니다.

4계명은 사람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계명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종, 가축, 객까지 적용하게 하십니다. 나도 안식하지만 내 안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십니다(11절).

5~10계명을 꿰뚫는 핵심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살인과 거짓증언은 힘이나 공권력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니 당연히 금지됩니다. 간음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질서있는 성생활을 위해 하지말라 하시는 것이며, 도둑질과 탐심을 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며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킴으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자유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빛과 소금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1-11

새 백성 새 사명

구원받았기에 / 대속의 은혜

M: 하나님과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식이 출애굽 전에 있지 않고 출애굽 후에 거행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가 됩니다. 언약을 지킨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에 언약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 바른 인식은 신앙생활의 모양을 좌우하게 됩니다. 전자로 생각한다면 한 없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절망 뿐이겠지만, 후자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고 감사하게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거행할 때 모세는 제물로 드렸던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리며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이고 피를 증거로 삼는 것은 언약을 어길 시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진 상황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모습만 그려졌는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 뿌림 이후였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르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옆의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대속의 능력을 힘입어 의롭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1-9

은혜와 벌

죄는 용서하리라 / 삼사 대 보응

M: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십계명은 윤리 도덕이나 생활 규범을 정한 법전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졌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상관없다, 각자 갈 길 가자' 라고 말하며 갈라서는 이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외도에 깨진 십계명 돌판은 이혼서류에 도장이 찍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계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자리에 놓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사랑으로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과 7절에서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한다는 하나님은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죄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좁게든 넓게든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둡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세대에게 미친다는 말씀은 죄가 죄를 낳고 죄악이 세대를 거쳐 반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의 지속적 결과가 가족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로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책임까지 없이 해주신다면 죄를 지은 당사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엄청난 억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보다 생각할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주시지만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제 3자, 모두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의 책임까지 없애려는 죄를 지은 것이 원통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얻게 될 피해가 무서워서 하는 알뜰한 회개를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분이지만 여전히 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파괴력은 매우 크며 죄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얻어진 고통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끝까지 밀고나가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34-38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 하나님과의 동행

M: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감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사라졌지만 사랑 하나로 단칸방에서 시작하자는 시절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상대는 물론이거니와 연애상대, 심지어 친구까지 조건을 따져가며 만나는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큰 그 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하나로 결혼하여 단칸방에 웃으며 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애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먼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법적을 부부관계가 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단칸방 같은 성막에 펜트하우스같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처소로 삼으시고 거기 살고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 '구름'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목도하며 그분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이 임재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됩니다. 모든 성도의 몸이 성전,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혼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모든 성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성막에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결정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 때는 얼마나 걸리든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고 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성도의 가고 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갈2:20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추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가야함을 포함합니다. 졸이 쉼이 이동하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있어야 함도 포함합니다. 남편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가고, 가라 할 때 멈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부부가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듯,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늘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